

研究論文

# 대한제국기 純宗의 南巡幸 연구

이 왕 무\*

I. 머리말	IV. 맺음말
II. 南巡幸의 배경과 준비	<참고문헌>
III. 남순행의 과정과 의의	<국문요약>

## I. 머리말

대한제국 황제의 순행[幸行]에서 대표되는 것은 순종의 南巡幸과 西巡幸이다.<sup>1)</sup> 고종도 재위기간에 행행을 거행했지만 주로 陵幸, 園幸 등이어서 조선시대 국왕들의 행행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光武년간에는 국내의 정치적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황제의 지방 순행이 이루어질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순종의 순행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순종은 1909년 1월·2월 삼남과 관북을 순행하는 남순행과 서순행을 거행하였다. 그런데 당시의 순행은 통감인 伊藤博文과 통감부, 그리고 일본 정부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진행된 것이 기존의 순행과 구별되는 점이다. 즉 일본은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할 수단으로 순종의 순행을 계획한 것이다. 일본은 순종의 순행을 통해 당시 격화되고 있던 반일 감정을 완화시키거나 친일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를 가지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조선왕실사 전공(ellias@hanmail.net).

1) 순종이 1909년 1월 초에 대구, 부산, 마산 등을 순행한 것을 남순행, 동년 1월 말 개성, 평양, 의주 등을 순행한 것을 서순행이라고 한다.

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일본이 황제의 순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배경은 明治 천황이 즉위하면서 거행한 지방 순행을 통해 일본 각지에 천황상을 심는데 성공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sup>2)</sup> 명치 천황의 순행은 1872년 5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당시 천황의 순행 목적은 천황이 일본 열도의 중심인 군주의 이미지를 재확인시키며 전국의 관료와 민인의 협력을 이끄는 데 있었다.<sup>3)</sup> 이러한 배경으로 일본 정부는 명치 천황의 순행을 본으로 삼아 순종의 순행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통치권을 정당화하고 한인들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일도록 시도 하였던 것이다.<sup>4)</sup>

이와 같이 일제 지배정책의 일환으로 작용한 순종의 순행 연구는 일천한 상황이다. 다만 본고에서 주사료로 인용하는 『南巡幸日記』에 대한 해제에서 순종의 순행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다.<sup>5)</sup> 이외에 순행 사료는 규장각의 『남서순행일기』(규17846), 장서각의 『남순행일기(K2-0182)』, 『남순행관계서류(K2-4684)』, 『서순행일기(K2-0222~0223)』, 『내각일기(K2-0188)』, 국사편찬위원회 간행 『통감부일기』 등이 있다. 이 자료들은 순행에 관련된 황제 의례와 典範, 동원 인원과 물자, 지방의 준비 상황, 궁내부와 통감부 그리고 일본 정부에 왕래한 전보, 민심의 동향 등 모든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위에 열거한 자료들을 근간으로 순종의 순행을 일본 제국주의의 교묘한 통치술의 하나로 인식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본고의 작성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T. Fujitani<sup>6)</sup>의 연구가 있다. 그는 명치천황의 순행을 사회사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국가의례를 통치 행위의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해석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의 연구 이론을 토대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순종의 순행을 통해 한반

2) 佐佐木克, 「明治天皇のイメージ形成と民衆」, 『幕末・明治期の國民國家形成と文化變容』(新曜社, 2002); 原武史, 「근대 일본의 교코케이(行幸啓)에 관한 고찰」, 『국가이념과 대외인식 17~19세기』(아연, 2002).

3) 小路田泰直, 『國民<喪失>の近代』(吉川弘文館, 1998), 76~88쪽.

4) 마루야마 마사오/김석근(역),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한길사, 1997), 419쪽.

5) 李章熙, 「남순행일기」, 『국학자료』, 9(문화재관리국, 1973).

6) Fujitani, T., *Splendid Monarchy: Power and Pageantry in Modern Japa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1996.

도내의 저항 세력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식민지화를 미화시키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친일정책에 동조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 II. 南巡幸의 배경과 준비

### 1. 순종의 순행 勅語와 배경

순종의 국내 순행은 1909년(융희 3) 1월 4일 순행 詔勅을 내리면서 결정되었다. 순행은 사전에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정을 목전에 두고 거행되었다. 대한제국의 儀禮가 조선조와 달리 皇帝禮를 지향했다고 해도 정월 초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京城에서 부산까지 순행한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그리고 고종의 행행 사례만 보더라도 행행지 선정, 시위군병 동원, 행행로 정비 등 대신들과 협의하고 준비된 상황에서만 행행을 거행하였다.<sup>7)</sup>

그러므로 순종의 지방 순행은 그 시작부터 정치적 음모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는 통감정치시기로 伊藤博文이 內政의 실세로서 순종의 행동거지도 그에 의해 충분히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순종은 일제가 주도한 고종의 양위로 제위에 올랐으므로 황실의 재정은 물론 의장을 담당하는 관원까지 일본인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sup>8)</sup> 따라서 전대미문의 1월 南方 순행이 한국인들에게 의혹의 눈초리를 받는 게 당연하였다. 특히 伊藤博文이 순종을 陪從한다는 사실은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민간에서는 통감이 순종을 일본으로 拉去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순행 당시에는 경상도 지역 유생들이 철도 노선에 누워 上訴號哭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다.<sup>9)</sup>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순종의 남순행은 1월 4일(양력) 詔勅으로 공포되었다. 이 조칙에서 순종은, 고종에게 양위를 받은 후 나라의 안녕과 백성의 구활을 위해 노

7) 김세은, 「고종초기(1863~1876) 국왕권의 회복과 왕실행사」, 서울대 박사논문(2003).

8) 1907년부터 1910년 사이 궁내부 직원의 구성분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宮內府 大臣官房 人事課, 『職員錄』).

9) 「西南巡幸」, 『新民』, 14(1925); 국사편찬위원회, 「伊藤統監 演說後의 韓民의 反響 및 奉迎狀況」, 『통감부문서(9)』(1999).

력했는데, 최근 국내 정세의 불안함과 백성들의 생활이 곤궁한 것이 염려되어 제왕의 안위를 지키기보다 이런 흑한기를 무릅쓰고 직접 지방을 시찰하여 백성의 고통을 알아보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였다. 특히 순종은 영친왕의 太師이며 統監인 伊藤博文이 순행에 배종하는 것이 자신을 돕고 난국을 수습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10)</sup>

그런데 순종의 조서 말미에 伊藤博文을 언급한 것은 일제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의심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조서에는 지방의 소란함이라고 하여 항일운동을 언급하였다. 항일운동의 선봉이었던 전국의 의병은 순종을 옹위하고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는 근왕병으로 일제에 대항하고 있었는데 이런 점을 순종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외에 순행의 준비 과정에서도 통감부의 입김을 느낄 수 있는데, 1월 5일 발표된 일정과 배종원이다. 순행 일자와 지역이 예고 없이 공표되었으며 수행원도 어떤 식으로 선발할 것인지의 논의 없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순행 참여 인원과 여정 등이 순종은 물론 내각과 의논 없이 공표된 것은 통감부에서 순행을 계획하고 진행했음을 입증한다. 특히 伊藤이 일본 宮内大臣에게 보낸 전문에서 순행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순종이 국내 민정시찰을 위해 남방 순행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역사상 일찍이 없던 것으로 황제가 직접 민심 동향 파악을 위해 거행한다고 하였다.<sup>11)</sup> 그리고 순종의 순행을 맞이하기 위해 지방의 한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奉迎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sup>12)</sup> 따라서 伊藤과 통감부에서는 순행의 목적은 물론 그 반향까지 예측하고 진행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 2. 수행원과 宮廷列車의 배치

순종의 남순행은 1909년 1월 7일~13일까지 6박 7일간이었다. 남순행 일정은 京城의 남대문 역을 기차로 출발하여 대구→부산→마산 등지를 거쳐 돌아오는 것이었다.

10) 『內閣日記』 융희3년, 1월 4일(양력).

11)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皇帝 南方巡幸에 관한 報告 件』, 『통감부문서(9)』.

12) 국사편찬위원회, 『韓皇 地方巡幸에 따른 地方日韓人의 民情 報告 件』, 『통감부문서(9)』.

**<1909년 1월 순종의 남순행 일정>13)**

- 1월 7일 오전 6시 40분 敦化門 出御  
罷朝橋→鐵橋→鍾路→黃土峴→新橋→布德門前路→大漢門(덕수궁 문안)
- 1월 7일 오전 7시 30분 大漢門 出御
- 1월 7일 오전 8시 10분 南大門 停車場 御發車
- 1월 7일 오후 3시 25분 大邱着 御經宿
- 1월 8일 오전 9시 10분 大邱 停車場 御發車
- 1월 8일 오전 11시 45분 釜山 御着 御經宿
- 1월 9일 釜山 御駐蹕
- 1월 10일 오전 9시 釜山 停車場 御發車
- 1월 10일 오전 11시 25분 馬山着 御經宿
- 1월 11일 馬山 御駐蹕
- 1월 12일 오전 8시 45분 馬山 停車場 御發車
- 1월 12일 오전 11시 45분 大邱着 御經宿
- 1월 13일 오전 8시 大邱 停車場 御發車
- 1월 13일 오후 3시 10분 南大門 停車場 御着
- 1월 13일 오후 4시 40분 덕수궁에 還御 문안, 창덕궁 臨御

순행의 일정에 맞추어 수행원은 황실과 정부 요원의 두 부류로 정해졌다. 그리고 수행원 수를 정리하면 궁내부 41명, 내각 42명, 통감부 13명으로 모두 96명이다. 이중 한국인은 68명이며 일본인은 28명으로 순행에 동반한 일본인의 수치가 1/3 정도임을 알 수 있다.<sup>14)</sup> 이들 수행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규정이 마련되었는데, 대체로 8개항으로 정리된다.

- 1) 玉車 近侍者 외 일반 供奉員 중 大禮服이 없는 자는 후록코트 착용 무방함.
- 2) 궁내부, 내각과 각부 부원 호종원의 휴대 화물은 궁내부 운수계서 담당함.
- 3) 도로, 교량의 修築, 의장기병의 파견, 御料馬車의 일은 動駕 규정에 의거함.
- 4) 沿路 警衛는 内部의 지휘를 받음.
- 5) 지방 철도선에 일본 헌병을 파견하여 5~10리 간격으로 擔銃別立 하게 함.

13) 『내각일기』 K2-0182, 『남순행일기』 K2-0188, 장서각.

14) 『순종실록』 2년, 1월 5일(양력)과 『내각일기』 권7, 융희 3년, 1월 5일을 정리하였다.

- 6) 학교생도가 祇迎送할 때 학부의 지휘를 받으며 한·일 국기를 지니게 함.
- 7) 통감부 통신국과 우편국에서는 순행 기념인장을 사용함.
- 8) 순종과 고종, 윤황후, 황태자 간의 안부 연락은 궁내부에서 담당함.<sup>15)</sup>

위의 8개 규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5, 6으로 각 지방의 인원 동원과 통제가 일제에 의해 운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각 지방에는 경찰이 있었음에도 일본 헌병이 동원된 것은 순행을 방해하는 행위나 의병의 출현 등을 무력으로 저지하기 위한 수단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학생들에게 한·일 국기를 가져가게 한 것은 순행이 황제의 奉迎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관련된 것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순종의 순행에서 무엇보다 특징적인 것이 서구식 교통기관의 이용이었다. 순종은 기차, 마차, 기선 등 다양한 교통기관을 이용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宮廷列車의 이용이다.<sup>16)</sup> 순종은 1월 7일 남대문역에서 21발의 烟花를 打揚하는 와중에 기차를 타고 순행길에 나섰다.<sup>17)</sup> 원거리 순행인 남순행은 근대 교통기관인 궁정열차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순행의 거행이 준비와 동시에 수일 내에 가능했던 것도 선발 인원이 열차를 이용하여 순행지로 가서 제반 사항을 처리했기 때문이다.<sup>18)</sup>

궁정열차는 특별 임시열차로 순행에 맞추어 임시로 편성되었다. 궁정열차는 7량으로 기관차—緩急車—1·2등—1등·식당—1·2등—玉車—3등—화차 등으로 편성되었다. 열차의 선두부터 탑승자들을 보면, 1·2등에는 判任官과 음악대, 1등은 勅奏任官, 1·2등에는 親任官과 勅奏任官, 3등은 判任官員役과 수행원 등이다.

그리고 奉侍하던 인원은 통감부터 義陽君, 궁내부대신, 시종원경, 시종무관장, 총리대신, 각부대신, 시종, 시종무관, 예식관, 女官, 통감비서관 등 12명이며 통감과 의양군을 제외하고 1명씩 교대로 하였다. 이들은 모두 大禮服을 착용하였으며 시종무관은 御旗를 휴대하였다. 이외에 이발사, 製藥生, 煎藥生, 水刺, 藥丁, 仕員, 庭監, 膳部和 膳手·廚丁, 使令, 給使, 隨員 등 28명이 탑승하였다.<sup>19)</sup>

15) 『내각일기』 7, 「巡幸時諸般準備畧」.

16) 명치 천황이 이용한 열차는 御召列車라고 하였다(原武史, 앞의 논문, 58쪽).

17) 『남순행일기』 권1, 1월 7일.

18)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皇帝 南巡計劃에 관한 件」, 『통감부문서(9)』.

궁정열차의 탑승객들은 통감부 철도관리국에서 교부한 證票를 휴대했다. 열차 탑승객은 황족에서 관원, 여관까지 모두 111인이었는데 乘車證을 지녀야 탑승이 가능하였다. 승차증의 앞면에는 제1행에 “明治 42년 1월”, 2행에 “宮廷列車乘車證”, 3행에 “統監府通信管理局”이라고 했으며, 후면에는 해당인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였다.<sup>20)</sup>

<그림 1> 宮廷列車와 純宗



궁정열차의 관리와 배정은 鐵道管理局長官인 大屋權平이 주관하였다. 철도국은 궁정열차의 배차를 위해 열차 시간표를 새롭게 조정했는데, 시간 조정은 물론 남순행 기간 내 해당 지역에서 운행되던 열차가 변경되고 임시 열차를 배정하기도 하였다.<sup>21)</sup>

그런데 순종의 행행에서 궁정열차의 등장은 단순한 교통기관의 이용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민에게도 시공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주목된다. 궁정열차의 운행은 열차 운행 시간표를 작성하여 정확한 도착 시간을 지역민에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궁정열차를 奉迎하기 위해 철도변에 나오거나 역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확한 시각을 인지하여 움직였다. 또한 사람들은 열차가 도착하기 전에 몇시 몇분에 정차 혹은 통과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순종을 맞이하기 위해 역구내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별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인과 한인, 그리고 지역사회의 계층적 질서가 공개적으로 자리 잡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궁정열차의 이용은 해당 지역민이 시간표에 맞추어 움직이는 결과를 가져와서 공간적·시간적으로 자연스럽게 통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sup>22)</sup>

19) 『내각일기』 7, 「玉車奉待官員」.

20) 위의 주 참조; 국사편찬위원회, 「宮廷列車 乘車證 및 便乘證交付 件」, 『통감부문서(9)』.

21) 국사편찬위원회, 「鐵道管理局 局報號外」, 『통감부문서(9)』.

### 3. 지방의 行在所와 환영회

남순행은 대구, 부산, 마산 등지에서 經宿하는 여정이었으므로 각 지역에서는 행재소를 준비했다. 행재소는 조선시대 국왕이 행행을 할 때 잠시 쉬거나 식사를 해결하는 곳이었다. 행행의 거리가 멀거나 일정상 경숙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行宮을 설치하거나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sup>23)</sup> 그런데 남순행에서는 행궁의 설치는 물론 행궁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않은 채 행행 과정에서 잠시 휴식처로 삼던 행재소를 행궁으로 차용하였다.

순종이 기차역에 내리면 역내의 휴게실에서 행재소까지 이동할 鹵簿가 준비될 때까지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 이윽고 순행 노부가 이루어지면 행재소로 이동했는데, 이 순행 노부는 행재소에서 기차역으로 갈 때도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노부는 조선시대 班次와 유사한 것으로 순종을 중심으로 순행 인원과 의장물이 巡幸路에 맞추어 정렬하여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노부는 각 역마다 동일하게 이루어졌는데 鹵簿式은 다음과 같다.

#### 地方鹵簿式(기차역과 행재소간)<sup>24)</sup>

	騎兵 騎兵	
典醫 禮式官	폐하	騎馬巡查 騎馬巡查
총리대신	시종무관 侍從卿 시종	騎馬警視
예식관 예식관	시종 시종무관장 시종무관	掌典官 禮式課長
騎馬警視	女官 女官	掌禮卿
騎馬巡查 騎馬巡查	기병 기병	궁내대신

위의 지방 노부식에는 순종이 대열의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행행에서 국왕이 대열의 중앙에 위치한 것에 반해 황제가 대열의 선두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일본인이 순행을 진행한 결과로서 메이지 천황의 순행에서 이와 유사한 노부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sup>25)</sup> 그리고 조선시대와 달리 마차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동 속도와 안전면에서 선두에 서는 것이 오히려 용이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2) 原武史, 앞의 논문, 58~65쪽.

23) 이왕무, 「조선시대 국왕의 溫幸 연구」, 『국사관논총』, 108(2006), 212~218쪽.

24) 『내각일기』 7, 「地方鹵簿式」.

25) 『明治天皇大阪行幸誌』(大阪市役所, 1921).



그런데 교통수단의 이용에서 한일 관료간의 차별이 나타난다. 1월 10일 마산역에서 행재소로 이동하는 동안 사용한 인력거의 배분을 보면 일본인들이 우선순위로 앞서고 있다. 당시 人力車配當表를 보면 村田少將←外波少將←古谷秘書官←國分秘書官←小松書記官←中山書記官←小山技師←藤波通譯官←義陽君←李總理大臣 등으로 인력거 이용에 한국인의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일본인 고위 장성과 통감부 요원이 먼저 차지하였다.<sup>26)</sup> 村田少將과 外波少將은 그 지위와 군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 2번에 배정된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황족인 義陽君은 9번째, 총리대신 이완용은 10번째로 배당받고 있는 반면에 비서관, 서기관, 기사, 통역관 등이 앞선 것은 일본인의 권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하겠다. 이런 분위기는 행재소의 설치와 환영회를 통해서도 재차 확인된다.

행재소의 정비와 마련도 주로 통감부에서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현전하는 순행 자료에 대부분의 행재소가 이사청이나 일본인 여관인 것을 감안한다면 행재소는 일본인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지방 관찰사의 숙소가 이용되기도 했지만 통감이 순종을 배종하는 상황에서 자연히 일본인들의 편리에 맞는 곳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sup>27)</sup> 수행원의 숙소 지정이나 변경도 행재소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순행을 배종한 통감부 요원들은 일본인이 경영하는 여관에만 숙소를 정했으며, 부산과 마산은 일본인 여관이 많았던 관계로 행재소와 수행원의 숙소는 일본식 건물로 정해졌다. 각 지역별 행재소와 수행원의 숙소를 보면 먼저 순행의 첫날인 1월 7일 행재소는 대구 관찰도청에 설치되었다. 대구의 행재소 마련과 환영 준비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의 行在所와 환영 준비사항><sup>28)</sup>**

- 행재소는 관찰사 관사를 이용하고 지방특산물을 전시한다.
- 통감의 여관은 理事官 관사로 한다.
- 각 大臣의 여관은 觀察道附近의 민가로 충당한다.
- 대구 전 시가에는 한일양국의 국기를 게양한다.
- 緋門은 停車場, 觀察道, 理事官司 앞에 세우며 양국의 국기를 게양한다.

26) 국사편찬위원회, 『韓皇隨行員의 現地交通 및 宿所配定表』, 『통감부문서(9)』.

27) 국사편찬위원회, 『韓皇 南巡에 따른 行在所 準備指示 件』, 『통감부문서(9)』.

28) 위의 주 참조.

- 道路修繕은 御順路에 地均을 위해 砂利, 砂를 부어 만든다.
- 御道는 정거장→石川寫眞館→남문→新聞社→觀察道門→관사에 이른다.
- 御發輦은 新聞社를 경유하여 鍾路를 통해 北門으로 나가 정거장에 이른다.
- 통감과 대신 등의 환영회는 達城館에서 1월 7일 오후 7시에 개최한다.
- 정거장과 부근 건물에 紅白의 천과 막을 치고 球燈과 국기로 장식한다.
- 便殿은 정거장 上等待合所로 하며 供奉員의 휴게소는 보통대합소로 한다.
- 轎 약 40臺, 인력거 50輛을 준비한다.
- 清潔法을 시행하고 전염병자 외출을 금지하며 犬猫類의 奔逸을 방지한다.

대구에서는 순종의 순행을 앞두고 관찰사는 물론 전 시민이 동원되고 있다. 시가에는 한일양국의 국기를 게양하였으며, 정거장 앞, 관찰도 앞, 이사관 관사 앞에는 緋門을 세우고 한일 양국의 대형국기를 문 양쪽에 걸고 있다. 그리고 도로 수선에서 순종의 행렬이 지나가는 곳은 토질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 砂利와 砂를 부어 만들었으며, 행재소까지 이르는 도로는 정거장에서 石川寫眞館 앞으로 나와 동쪽으로 꺾어 남쪽 남문으로 들어가 신문사 앞을 경유하여 관찰도문으로 들어가 관찰사 관사에 들어가는 일정이다. 특히 순종이 묵는 행재소 내부에 지방특산물을 전시했는데, 이것도 명치 천황이 순행할 때 진행한 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해당 지역의 자긍심 고양과 물산 장려가 목적이었다.<sup>29)</sup>

순종은 대구역에 3시 25분에 도착하여 15분만인 3시 40분에 행재소인 관찰사 관사로 들어갔다. 伊藤博文과 통감부 직원은 이사관 관사와 여관을 이용하였으며, 정부 대신들은 관찰도청 부근의 민가를 숙소로 사용하였다.<sup>30)</sup> 반면 부산과 마산에서는 순종을 비롯한 한인과 일본인들이 모두 이사청과 일본인 여관을 숙소로 정한다. 이는 당시 부산과 마산이 일본인들이 계획하고 조성한 신도시라는 점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부산과 마산은 일본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본 이주민이 많고 그에 따라 여관이 많았던 배경이 작용했다고 본다.<sup>31)</sup>

순종은 1월 8일 오전 11시 45분 부산역에 도착하여 행재소인 일본 이사청에 12

29) 국사편찬위원회, 『韓皇南巡에 따른 現地 奉迎狀況 報告』, 『통감부문서(9)』; 『明治天皇大阪行幸誌』(大阪市役所, 1921).

30) 국사편찬위원회, 『韓皇隨行員 宿所配定 件』, 『통감부문서(9)』.

31) 국사편찬위원회, 『韓皇隨行員의 現地交通 및 宿所配定表』, 『통감부문서(9)』.

시 15분에 도착했다. 부산의 한인과 일본인들은 정거장 앞과 순행 행렬이 지나가는 교차로마다 大線門을 세웠으며 일본 육해군대와 각 학교 생도 등이 순행로 양측에 도열하여 환영하였다. 그리고 항내에 입항해 있던 일본 함대에서는 예포를 쏘아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sup>32)</sup> 야간에도 일본 함대는 군함을 전등으로 장식하여 항내를 밝혔으며 한일 양국민과 각 학교생도들은 순종의 행재소인 이사청까지 제등행렬을 이루었다.<sup>33)</sup>

1월 10일 순종이 마산에 임어할 때 마산의 행재소는 한일 양국기를 교차해서 게양하고 만국기와 球燈 등을 설치하여 敬意를 표했다. 마산에서는 이사관·부윤·경찰서장과 民長, 그리고 한일 관리·議員·학교생도·일본적십자사원·애국부인회원·기타 각 단체원과 유지 등이 마산역에 나와 순종의 마차가 지날 때 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행재소에서는 한일 고등관 이상이 각각 단체로 배알하고 헌상품을 바쳤다. 야간에는 마산만의 한일 어선에서 점등하고 각 섬에서는 煙火를 하였으며, 제등행렬이 행재소 앞까지 이루어졌다.<sup>34)</sup>

마산 행재소는 이사청사를 개조한 것이었다. 통감부에서는 이사청사를 행재소로 사용하기 위해 玉座謁見所, 御寢所, 御寢所와 侍從者滯所, 女官用室 등을 신축하거나 개축하였다. 그런데 행재소의 개조에서 이상한 점은 온돌 같은 한국식 난방장치를 두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부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부산과 마산이 해안지방이라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였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당시는 1월 초로 한반도 전체가 겨울이었다. 그럼에도 난방시설을 개축한 일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부산과 마산 행재소의 침소는 침대이거나 일본식 다다미방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겠다.<sup>35)</sup>

행재소와 마찬가지로 순행 여정도 일본인들이 치밀하게 진행하였다. 1월 5일 통감부에 보고된 부산 지역의 순행에 대비한 준비과정을 보면, 그 인원과 지시사항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奉迎委員長인 이사관을 비롯하여 세관장, 철도 관계자 등 모두 29명이 부산의 봉영위원이었다.<sup>36)</sup> 그런데 이

32) 『남순행일기』 권1, 1월 8일.

33) 위의 주 참조.

34) 국사편찬위원회, 『皇帝 馬山到着 報告』, 『통감부문서(9)』.

35) 국사편찬위원회, 『馬山에서의 奉送迎節次 및 行在所宿所配定表』, 『통감부문서(9)』.

36) 국사편찬위원회, 『皇帝陛下 釜山到着 大奉迎件』, 『통감부문서(9)』.

봉영위원회에 한인은 한명도 없으며, 행사를 주관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주요 직책은 모두 일본인이 담당하였다.

그리고 실제 행사의 실무를 담당한 부산 이사청 廳內係員들의 사무분담 사항을 보면, 교통기관의 이용, 送迎者들의 위치, 순행로와 환영 시설물의 정비, 수행원들의 숙소 배정, 시찰 지역의 선정과 정비, 경호 등 순행에 따르는 대부분의 사항을 담당하였다. 특이한 것은 순종의 순행을 러시아와 청국 영사관에 통지한 것이다. 순종의 순행을 외국 영사관에 통보하는 일은 외교적인 일로서 중앙의 통감부에서 해야 함에도 부산에서는 이사청이 담당하고 있었다.<sup>37)</sup>

이외에 순종이 대구, 부산, 마산 등에서 매번 거행한 것이 지역민의 拜謁이었다. 배알은 전현직 관원, 노령자, 일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다. 순행 첫날 오후 3시 50분 대구 행재소에서 한·일인 56명이 배알하였다. 대구 控訴院長인 土井庸太郎의 배알을 시작으로 검사장 黑川穰, 그리고 경상북도 관찰사인 朴重陽이 세 번째였다. 관찰사 박중양은 경상북도를 관할하고 대구의 관찰사부에서 순종을 맞는 상황이었음에도 일본인 보다 뒤에 알현을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부산에서도 벌어지는데, 1월 8일 부산 행재소에서는 해군소장 高岡直記, 해군소좌 鈴木氏正, 그리고 경상남도 관찰사인 黃鏞이 세 번째였다.<sup>38)</sup>

이와 같이 관직상으로 대한제국의 관원보다 하위인 일본인이 우월한 위치에서 순행에 임하는 모습은 대구만이 아니라 부산, 마산 등 모든 일정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서 한일 양국의 우호 증진을 꾀한다는 伊藤博文의 취지는 그 근거에서부터 어긋나고 있는 셈이었다.

### III. 남순행의 과정과 의의

#### 1. 순행의 旅程과 視察

순종은 1월 7일 경성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여정에 지나는 지역의 관원과 군민

---

37) 위의 주 참조.

38) 『남순행일기』 권1, 1월 8일.

들을 수시로 접견하였다. 그리고 대구와 부산을 비롯한 순행 중 經宿하는 행재소에서는 어김없이 고종에게 문안 전보를 보냈으며 반대로 고종의 수라와 起寢 등 기거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받았다. 또한 동경에 있는 태자에게도 안부의 전보를 주고 받았다. 또한 여정에 포함된 선대 충신들의 사당과 묘소에 致祭하였다.<sup>39)</sup> 이외에 가야의 시조인 首露王과 김유신의 무덤에도 지방 관리를 보내어 제사를 지내 주도록 하는 동시에 무덤으로 가는 길을 보수하게 했다.<sup>40)</sup>

이와 같이 순종의 순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해왔던 행행과 마찬가지로 여정에 포함된 선대의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렇지만 순행의 일정이 일본인에 의해 주도되는 상황에서 순종의 지시에 따라 치제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남순행 기간 중 孝昌園, 懿寧園, 永徽園, 延齡君墓, 양녕대군묘, 효령대군묘 등 왕실 인물에 대한 奉審은 있었지만 더 이상의 치제는 보이지 않고 있다.<sup>41)</sup>

1월 7일 궁정열차가 대구역에 들어설 때 烟花 21발을 打揚하였다. 순종은 행재소까지 마차로 이동했는데 수 만명의 환영인파가 외치는 만세 소리를 들었다. 야간에도 행재소 앞까지 운집한 환영인파가 제등행렬을 마치면서 만세를 외쳤다.<sup>42)</sup> 대한제국 황제가 수 만명의 인파에 싸여 환영 받는 모습은 일대장관으로서 근대의 개념이기도 한 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별적이며 집합적인 사회적 현상이 도출되는 장면이기도 하다.

대구에서와 같이 황제와 신민이 어우러지는 모습은 순종의 순행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대한제국민의 열성은 통감부에 의해 주도된 순행의 성격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었다. 伊藤博文은 순종의 권위를 빌려 자신들의 한반도 식민화를 가속화하려는 의도였는데, 대한제국민의 황제에 대한 열성적인 충정은 곧 자신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 바로 이러한 미묘한 대중의 움직임을 장악하려고 한 것이 일본측의 숨은 의사라고 할 수 있으며, 伊藤의 연설이 그것을 반증해주고 있다.<sup>43)</sup>

1월 8일 궁정열차는 부산에서 奉迎 온 경상남도 관찰사 黃鍊과 부산 이사청 이

39) 『순종실록』 2년, 1월 7일(양력).

40) 『순종실록』 2년, 1월 8일(양력).

41) 『미서원일기 抄出』 융희3년 1월.

42) 『남순행일기』 권1, 1월 7일.

43) 이 장의 3)한국인과 일본인의 反響 참조.

사관 龜山理平太 등을 태우고 9시 10분 대구를 떠나 청도역에서 5분간 정차한 후 11시 45분 烟花를 打揚하며 부산역에 도착했다. 대구와 마찬가지로 한일 양국민 수 만명이 운집하였으며 역전에서부터 교차로마다 크고 작은 綠門이 세워지고 집집마다 한일 양국기를 게양하여 환영 분위기를 고무하였다.<sup>44)</sup>

이와 함께 한일 악대의 奏樂과 부산항내 일본 군함에서 쏘아대는 禮砲 소리, 수만 인파의 만세 소리, 형형색색의 깃발 등은 시각, 청각, 공간적으로 순종을 비롯한 수행원은 물론 한국인 일본인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야간에도 환영 분위기는 지속되어 부산항 내 일본 군함들은 전등을 장식하여 화려한 불빛을 비추었으며 한일 각 학교의 생도와 일반인들은 제등행렬을 행재소까지 이루어 경축하였다.<sup>45)</sup>

부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오전 9시 40분 일본 천황이 보낸 전보였다.<sup>46)</sup> 천황은 순종이 흑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남부 지방에 순행한 것을 통감에게 보고 받고 경의를 표하는 방법으로 일본 함대를 부산에 보내니 臨御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순종은 동일 오후 6시에 답신 전보를 보냈다. 이 전보에서 순종은 천황이 함대를 파견한 호의에 감사하며 내일 날씨가 어떠하든지 함대를 방문할 것이고 통감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성으로 보호하는 것에 감사한다고 했다.<sup>47)</sup> 이런 안부 전보는 마산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당시 부산에는 일본 제2함대가 순종의 부산 도착에 맞추어 1월 7일 입항해 정박 중이었다. 1월 9일 순종은 통감과 한일 문무 고등관을 거느리고 일본 제2함대의 기함인 淸妻에 승선하기 위해 10시 30분 행재소를 나섰다. 오처함에서는 해군 중장 出羽重遠 함대 사령관의 선도로 少憩次에서 쉬 후 각 艦長司令, 幕僚들의 拜謁을 받았다. 그리고 出羽 사령관의 선도로 함내를 순시한 후 하함교에서 1시간 동안 수병들의 조련과 체조를 구경하였다. 이후 12시 15분에 將官室에서 晝餐을 열었는데 일본 제1함대 사령관 伊集院五郎, 伊藤博文, 내각총리와 각 대신 등이 陪食하였다.<sup>48)</sup>

44) 『남순행일기』 권1, 1월 8일.

45) 위의 주 참조.

46) 『남순행일기』 권1, 1월 8일.

47) 위의 주 참조.

48) 『내각일기』 권7, 1월 9일.

이때 식당에는 한국 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出羽 사령관이 삼패인으로 순종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를 청했다. 이에 순종은 伊藤의 동행을 재차 치하하면서 천황의 후덕으로 파견한 함대를 볼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 천황의 건강을 축수하며 건배를 제창하였다. 식사를 마친 순종은 1시 40분에 하선하여 부산항 내의 상품진 열소를 관람하였다. 순종이 하선할 때도 일본 군함들이 일제히 21발의 皇禮砲를 발사하여 장엄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sup>49)</sup>

1월 10일 순종은 오전 9시에 기차를 타고 마산으로 향했다. 궁정열차는 草梁→부산진→龜浦→勿禁→院洞 등 5개 역을 지나 9시 59분에 三浪津에 도착하였다. 부산과 마산 사이의 철로 양면에는 한일 양국의 민인들이 열렬한 환영을 하였다. 삼랑진에서는 마산 이사관청 이사관 三增久米吉, 동래부윤 金彰漢 등이 陞見하였다. 기차는 삼랑진에서 10시 5분 출발하여 낙동강→進永→창원을 지나서 11시 25분 마산역에 도착했다.<sup>50)</sup>

마산에는 한일 양국인의 환영인파가 10만명 이상이였다. 마산역에는 특별히 개설한 꽃길 우측에 애국부인회원, 馬山婦人慈惠會員이, 그 좌측에는 육해군의 上長官과 한일양국의 지방관, 公吏, 議員, 신문기자, 일본적십자사특별사원 등이, 역 밖의 좌측에는 해군의장대 550명이 春日艦長 竹下大佐의 지휘하에 정렬하였다. 그 다음에는 海軍無銃隊 2,000명이 香取艦砲術長 堀田中佐의 지휘하에 정렬하였다. 그리고 우측에는 한일官公吏, 한일 학생도, 일본적십자사원, 재향군인, 消防組, 기타 각종 단체원과 일반 유지자 등 7,000명이 정렬한 가운데 11시 25분 궁정열차가 안착하자 奉迎煙花 21발과 함대에서 皇禮砲를 발사하여 환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sup>51)</sup>

마산에서도 부산과 동일한 형태로 행재소로 이동했으며 奉迎者들은 순종의 마차가 지나가면 만세를 부르고 순종은 이에 擧手하면서 11시 50분 이사청에 도착하였다.<sup>52)</sup> 야간에는 생도단과 유지단의 제등행렬이 이어졌으며, 행재소 앞 광장에 帳幕을 설치하고 밤새도록 ‘聖壽萬歲’를 외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해상에는 일본 함대에서 탐조등과 야간 조명을 이용하여 밤을 밝혔으며 해군 군악대가 연주를 하

49) 위의 주 참조.

50) 『남순행일기』 권1, 1월 9일; 『내각일기』 권7, 1월 9일.

51)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皇帝陛下馬山御巡幸記事』, 『통감부문서(9)』.

52) 위의 주 참조.

여 야간에도 환영 분위기는 계속 고조되었다.<sup>53)</sup>

1월 11일 순종은 재차 일본 함대를 방문하는 觀艦式을 거행하였다. 순종 일행은 稅關이 부두에 가설한 棧橋를 지나 汽艇을 이용하여 일본 제1함대의 기함인 香取에 올랐다. 순종은 항취에서 21발의 황예포를 발사하는 가운데 함대사령관인 伊集院五郎, 山田 사령관, 막료 등의 영접을 받고 선내를 순시하고 임시 부설한 水雷 2개의 폭발을 보았다. 이후 순종은 통감과 義陽君, 각 대신, 供奉官 등과 함께 司 令長官室에서 午餐 향응을 받았다.<sup>54)</sup> 그리고 제2함대 기함인 오처에서와 같이 수병들의 조련연습, 수뢰정의 운영, 전투준비, 포탑의 선회와 장탄, 화재진압, 육전대의 상륙연습 등을 관람하였다. 또한 조선해수산조합 마산지부의 漁獲 경기를 보고 4시 5분에 퇴함하여 4시 25분에 행재소로 돌아왔다.<sup>55)</sup>

순종은 1월 12일 8시 25분 행재소를 출발하여 마산역 편전에서 휴식을 취하고 8시 40분에 대구로 출발했는데, 이때 일본 제1·2함대가 예포 21발씩을 발사하여 祇送하는 경의를 표하였다.<sup>56)</sup> 마산을 출발한 궁정열차는 창원→進永→낙동강역을 지나 삼랑진과 청도역에서 5분간 정차하고 11시 45분에 대구역에 도착하였다. 순종은 대구역 가편전에서 휴식을 취하고 達城公園에서 열린 한일 각 학교의 집단운동회에 역임한 뒤 오후 1시 30분에 행재소인 경상북도 관찰사관사에 도착하였다. 오후 2시에 행재소에서 경기 관찰사 金思默, 경상북도 관찰사 朴重陽, 전라북도 관찰사 李斗璜, 전라남도 관찰사 申應熙, 충청남도 관찰사 崔廷德, 충청북도 관찰사 權鳳洙와 상주 군수 李仁用 이하 각 군수 17명 등을 불러들여 지방 시정의 방침을 勅諭로 내렸으며, 각 관찰사에게 돈 7,000원을 내려주고 교육과 실업을 장려하는 비용으로 충당하여 쓰라고 지시하였다.<sup>57)</sup>

그런데 대구에서는 예정에 없던 순행 일정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본래는 대전역

53) 『남순행일기』 권1, 1월 10일.

54) 『남순행일기』 권1, 1월 10일; 국사편찬위원회, 「皇帝陛下 日本第一艦隊 訓練演習觀覽件」, 『통감부 문서(9)』.

55) 『남순행일기』 권1, 1월 11일; 『내각일기』 권7, 1월 11일; 국사편찬위원회, 「皇帝陛下의 日艦隊 旗艦 臨御에 대한 影響」, 『통감부 문서(9)』.

56) 『남순행일기』 권1, 1월 12일; 『내각일기』 권7, 1월 12일.

57) 『남순행일기』 권1, 1월 12일; 『내각일기』 권7, 1월 12일; 국사편찬위원회, 「南部地方 巡幸時 各道 觀察使에게 내린 詔勅」, 『통감부 문서(9)』.



을 거치지 않고 오후 3시 30분 남대문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대전을 거치기로 결정하여 還御 시간을 조정하였다.<sup>58)</sup> 1월 13일 궁정열차는 8시에 대구를 출발하여 추풍령과 성환역을 지나 오전 11시 26분 대전역에 도착하였다.<sup>59)</sup>

순종은 대전역에서 은퇴한 정2품 宋道淳, 정3품 宋鍾奎, 宋秉學, 金德洙, 宋鐘國 등을 만나고 칙서를 내렸다. 이 칙서에는 순행의 영향과 순종의 의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짐이 이번에 지방을 돌아보는 것은 백성들의 실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칙서를 내린 것을 경 등은 보았을 것인데 지금 경들을 보니 아직도 이전 날의 모습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 대개 현시대에 와서 만약 새롭게 일신할 생각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경 등은 짐이 직접 사상을 개발하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다. 짐이 물론 모든 백성들에게 다 지시하지 못하지만 경 등은 대대로 벼슬살이를 해오는 집안으로서 나라와 고락을 같이할 의리가 있으므로 먼저 직접 만나서 지시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sup>60)</sup>

순종은 구습에 젖어서 시세의 변화에 맞추지 못하는 것은 “興國家同休戚”이 아니라며 강하게 이들을 꾸짖었다.<sup>61)</sup> 당시 송도순 등은 흑단령에 상투를 한 차림으로 순종 일행과 외관부터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순종의 칙어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보인다. 순종의 칙어를 통감부에서 임의로 조작하거나 친일관료가 조정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6박 7일간 근대문물의 상징인 기차를 이용하여 남부 지방을 순행하고 일본 함대의 장대함과 신식 문물의 이로움을 목격한 순종의 입장에서 보면 위와 같은 칙어를 내린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점은 매우 미묘한 해석을 요하는 부분이지만, 분명한 것은 순종을 비롯한 정부 요인들이 순행 기간 동안 부산과 마산에서 근대문물 곧 일본식 발전 형태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본다.

순종은 충청도 유지들의 알현을 마친 이후 다시 궁정열차에 올라 평택→수원→안양→영등포→노량진 등의 역을 거쳐 3시 40분 남대문역에 도착하였다. 순종은 마차를 이용하여 덕수궁에 가서 고종을 문안하고 창덕궁으로 환어하였다. 이날 경

58) 『남순행일기』 권1, 1월 12일.

59) 『승정원일기』 융희3년, 1월 13일; 『남순행일기』 권1, 1월 13일.

60) 『내각일기』 권7, 1월 13일.

61) 『남순행일기』 권1, 1월 13일.

성에서는 문무관, 공사립학교 생도, 한일양국민이 남대문역에서부터 창덕궁까지 길가에 배열하여 한일 양국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치면서 순종의 무사 환어를 봉영하였다.<sup>62)</sup> 순행의 마지막 공식 행사는 1월 16일 12시 창덕궁 인정전에서 개최한 오찬이었다. 순종은 인정전 동쪽 행각에 나가 통감, 義陽君 및 親任官들과 식사를 함께 하였으며 또한 순행할 때에 호위한 勅任官, 奏任官, 문무 관원 100명에게도 오찬을 내려 주었다. 이날로 1월 7일부터 1월 13일까지 거행된 순행의 대미가 마무리되었다.

## 2. 일본의 대응과 함대의 파견

순종의 순행이 일본인에 의해 진행되고 통감부에서 주도하는 인상은 일본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통감부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제국은 명실상부한 황제국으로 그것에 상응하는 皇帝禮와 함께 조선왕조의 의례 전통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순행 의례를 준비하고 진행시키는 것은 큰 문제였다. 특히 순종의 순행을 계기로 반일 감정과 의병 투쟁이 격화되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배경으로 순종의 순행을 처음부터 기안하고 주도했던 일본인들은 순종과 관원들의 환심을 사는 것은 물론 순행 지역 민심의 향방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일본으로서도 순종의 순행이 대한제국 황실의 위엄을 빌어 남한 지역 민심을 안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므로 순행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단행한 것이 천황의 일본 함대 파견이라고 볼 수 있다.<sup>63)</sup> 순종은 순행의 와중에 일본 천황과 문안 전보 교신을 하였다. 천황은 순종이 겨울 날씨에도 남부 지방을 시찰한다는 것을 통감을 통해 알았으며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일본 함대에 지시하여 부산에 귀항하게 하였으니 항구 안에 있는 기함에 행차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순종은 일본 천황의 친절한 뜻을 받들어 날씨에 관계없이 旗艦을 찾아가 보겠으며, 통감이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지성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으니 감사한다는 답신을 보냈다.<sup>64)</sup>

62) 『내각일기』 권7, 1월 13일.

63)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皇帝의 南巡行次에 日本皇帝의 祝電稟奏依賴件』, 『통감부문서(9)』.

이와 같이 순종의 일본 함대 방문은 일본 측에서도 적극적이며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일본 함대의 파견은 국내외로 큰 사건이었다. 함대를 운영하는데 소모되는 채용은 물론이거니와 해외에 군함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외교적 문제를 충분히 일으킬 소지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동북아시아의 최강 함대인 일본 군함을 한반도에 파견한다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sup>65)</sup>

천황의 지시로 일본 정부에서는 함대를 부산과 마산으로 파견할 것을 결정한다. 이에 일본 해군은 1월 5일 제1함대는 부산에, 제2함대는 마산으로 파견하였다.<sup>66)</sup> 당시 일본 해군에서는 기함을 방문한 순종과 통감, 義陽君 그리고 대신 등의 일행을 위하여 갑판 위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기를 연주하며 분위기를 띄우는 한편 각종 선상 훈련과 전투 수행법 등을 선보였는데 다음과 같다.

1. 艦載한 水雷艇을 급속히 海面에 垂下하는 조업
2. 艦首에 장치된 砲搭砲를 급속히 旋回하는 조업
3. 함내 소방진압 작업
4. 함내의 단체 운동(체조와 제식)
5. 해안에 있는 가상적에 대한 陸戰隊의 상륙

위에 열거한 5가지 함대 조련 사항은 통감과 일본인들을 제외한 순종 일행이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근대 서구 제국주의 국가가 보유한 함대는 물론 정식 군함조차 없던 대한제국의 황제와 관료들이 러시아 제국 함대를 격멸한 일본의 함대를 방문했을 때의 심정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함 내에서 수병들이 작동하는 각종 기계 장치와 군사 훈련 등은 순종 일행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음은 충분히 알 수 있다.<sup>67)</sup> 순종은 일본 함대를 방문한 후의 심정을 조서를 통해 드러내었다. 1월 11일 순종은 일본 제1함대의 旗艦 香取號를 돌아보고 나서 다음과

64) 『순종실록』 2년, 1월 8일(양력).

65) 국사편찬위원회, 「皇帝陛下의 日艦隊 旗艦 臨御에 대한 影響」, 『통감부문서(9)』.

66) 국사편찬위원회, 「韓皇南韓巡幸中海軍에 관련된 記事」, 『통감부문서(9)』.

67)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皇帝가 觀覽할 操練演習準備狀況」; 「皇帝陛下 日本第一艦隊 操練演習觀覽件」, 『통감부문서(9)』.

같은 조서를 내렸다.

짐이 부산에서 귀 천황 폐하의 친절한 의사를 받들기 위하여 제2함대를 친히 찾아가서 굉장한 것을 목격하고 오늘 또 마산에서 제1함대에 직접 와서 굉장히 우수한 군사 정형을 보았다. 이것을 미루어 일본 해군의 세력이 어떠한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이제 경들과 한 상에서 술을 마시게 되니 마음이 더욱 기쁘다. 짐은 이에 경들과 함께 잔을 들어 멀리 귀 천황 폐하의 건강을 축원하는 바이다.<sup>68)</sup>

위의 문장이 순종의 심정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작성되었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순종의 진정이 담긴 내용이라면 그 반향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순종의 순행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합법성을 정당화하려는 일본의 책략이 성공했다는 측면과 함께 순종이 서구 제국주의 국가와 동일하게 일본이 문명화된 국가로 인식하면서 그 존재를 평가하게 되었다고 보는 시각이다.

순종이 러일전쟁 이후 동아시아 세계 질서를 개편하고 있던 서구 제국주의 세력에 유일하게 대응하던 일본을 우호적으로 혹은 유일한 동맹으로, 아니면 대한제국을 문명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패턴으로 보았던 간에 중요한 점은 함대 방문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존재하던 일본의 현실적인 힘을 목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종은 일본 함대를 부산과 마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방문하면서도 동일한 군함의 방문임에도 오히려 그 존재를 慰撫하고 敬愛하는 상황으로 몰고 나아갔다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이러한 순종의 모습은 일본 제1함대를 방문하는 장면에서 찾을 수 있다. 1월 11일 순종은 일본군함에 승선한 것을 순행 기간 중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하였고 德大寺 시종장이 伊藤에게 보고 할 정도로 일본인들은 순종의 함대 방문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sup>69)</sup> 그러므로 일본 함대의 방문은 한일 양국의 입장에서 보면, 순종은 일본의 무력을 직접 대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인들은 한일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한국인들의 인심을 얻는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sup>70)</sup>

68) 『내각일기』 권7, 1월 11일.

69) 국사편찬위원회, 『皇帝陛下의 日艦隊 旗艦 臨御에 대한 影響』, 『통감부문서(9)』; 原田豊次郎, 『伊藤公と韓國』(日韓書房, 1909), 64-68쪽.

### 3. 한국인과 일본인의 反響

순행에 대한 한국내의 여론은 좋지 않았다. 당시 대한제국의 臣民은 러일전쟁 이후 가속화되던 일본의 침략에 두려움과 투쟁심을 동시에 발현하고 있었다. 특히 외교권의 박탈과 통감정치, 고종의 양위와 군대의 해산 등은 전국 각지에서 일본의 침입을 거부하는 배일운동을 자발적으로 일으키는 사건들이었다. 이런 와중에 순종이 지방을 순행한다는 것은 일본인에게 황제가 이용된다는 인식을 주기에 좋은 구실이었다. 반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순종의 순행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의 민심을 안돈시키는 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다.<sup>71)</sup>

이러한 국내 정세에 맞추어 순종의 순행을 민심 안돈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인물은 伊藤博文이었다. 그는 순종을 보필한다는 명목으로 수행하면서 순행지에 도착하면 매일 밤 환영회에 참석하여 한일간의 우호를 다지는 연설을 하였다. 伊藤은 환영회 만찬 연설에서 늘 황제권을 강조하며 臣民인 한인들은 마땅히 순종의 명령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손하게 순종할 것을 말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면 굳이 순종을 보필하여 근대 교육을 일으키고 산업을 권장할 이유가 없다며 오로지 한국이 서구의 침략을 벗어나 문명국으로 나가는 것을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이런 배경으로 황태자를 일본에 유학시켰으며 통감을 두어 한국의 내정을 보필하게 되었다는 논리를 주장하였다.<sup>72)</sup>

그런데 순행을 환영하던 동시대인의 눈으로 볼 때 伊藤의 주장은 당대 지식인들의 주장과 대동소이하면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와 닿는 공감대를 이루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것은 각 지역의 대표되는 관료와 지식인들이 참가한 순행 환영회의 반응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순행의 일정에서 대구, 부산, 마산 등지의 환영회에서 매번 거행된 伊藤의 연설 과정에서는 어떠한 불상사도 반대 의사도 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한인 지식인들이 공감대를 이룬 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물론 일본 헌병과 군인의 삼엄함 경비로 인해 한국인들의 저항이 사전에 저지되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순행 환영회 장소가 일본인이 경영하는 요리점이 대부

70) 국사편찬위원회, 『韓皇의 南巡成果 執奏依賴 件』, 『통감부문서(9)』.

71) 李覺鍾, 『純宗實記』(신민사, 1927).

72) 原田豐次郎, 위의 책.

분이어서 연설을 듣던 한인들이 친일파이거나 친일적인 성향에 동조하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순종의 남순행을 저지하려고 철로에 놓는다거나 함대 방문을 막으려고 기도한 일들을 비교한다면 伊藤의 연설에서 저항의 목소리가 나타나야 했다. 그럼에도 오히려 순행 일정 중에 한인은 모두 순종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신민으로서의 자세를 잃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실제 伊藤의 연설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한인들의 반응을 유추할 수 있는데, 1월 7일 순행의 첫 여정지인 대구에서 오후 7시 達城館에 운집한 한일 양국민을 향해 연설한 내용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伊藤은 “韓皇폐하의 지방민정 시찰은 한국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관광이나 유람이 아니라 오로지 한일 양국민의 親和를 親察하기 위함이며, 폐하의 聖意는 지방 민심이 평화를 회복하고 각자 본분에 근면하여 한국의 부강을 이루는데 있으니 殖産興業과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sup>73)</sup>

伊藤의 연설에서 순종의 순행 목적은 분명히 나타난다. 순종의 순행이 전례가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배경에는 伊藤과 일본 세력들이 바라던 지방민심의 安頓도 한일 양국민의 화합을 이끌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역으로 말한다면 당시 대한제국 각지의 민심과 사회적 상황이 통감부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伊藤은 황제인 순종을 내세워 각지의 안녕과 함께 일본의 통치력 안정을 획책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 그런데 순행 지역마다 행해진 伊藤의 연설 중에는 당시 문명화에 관심이 있던 한국인들의 심성에 와 닿은 부분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는 것이 흥미로운 점이다. 다음은 지역별 伊藤 통감의 연설 중에서 발췌한 내용이다.<sup>74)</sup>

#### <순행 일자별 伊藤博文 연설 발췌문>

○ 1월 7일 대구 달성관

일본이 한국을 滅却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한국신민의 행복을 증가시키는데 있다. 정치는 인심의 安靖이 우선이니 폐하의 순행에 맞추어 그 성의를 받들어 따를 것을 바란다.

73) 『내각일기』 1월 7일, 「대구 이등통감 연설」.

74) 『내각일기』 1월, 「이등통감 연설」; 原田豊次郎, 앞의 책.

○ 1월 8일 부산 守谷館

본인은 한일 양국의 황제가 조인한 조약에 의거하여 한국의 외교를 담당하고 내정을 감독하는 통감에 부임하였으며, 천황께서는 한국을 도와서 문명세계로 나가게 하고자 하여 통감에게 전력으로 한국을 지도개발하게 하셨다.

한일 양국이 힘을 합해 동양평화를 이루게 되면 세계평화를 이루는 성과를 이룰 것이니 한일 양국간의 친화는 동양평화를 유지하고 세계평화를 이루는 공헌이 된다.

○ 1월 10일 마산 望月館

일본은 극동에 위치한 한국의 위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니 한일 양국민은 화합하여 우의를 다지고 생업에 종사하길 바란다.

○ 1월 12일 대구 이사청

儒生 제군은 지방의 중류 이상의 인민으로 학식이 있는 자들이니 군주의 뜻에迎合해야 한다. 지금은 지구상의 여러 제국이 相通하는 시대로 서양제국이 동양을 침략하는 상황에서 그대들이 존경하던 支那는 한심한 상황으로 되었지만 일본은 서구 세력과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支那의 상태를 잘 생각하면 일본과 交通하고 합심하여 문명국으로 나아가서 서구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런데도 과거에 얽매어 구태를 지키면서 문명국과 交通하지 않아 무력으로 타국의 침략을 받지 않았는가? 오늘날 일본이 한국에 바라는 것은 구습을 버리고 교육과 식산흥업에 힘써서 일본과 文明恩澤에 나가기 위해 合力하는 것이다. 이에 통감은 한국의 형세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황제 폐하의 부탁으로 황태자 전하를 일본에 유학까지 시켰으니 어떻게 내가 한국을 멸망시킬 목적이 있겠는가? 제군들은 황제 폐하에 복종하면서 지방의 縉紳者로 인민을 선도하길 바란다(이때 한인 한명이 연단 아래에 이르러 통감에게 무엇을 말했는데 군중이 제지하여 연설은 계속되었다). 제군 중에 단독으로 일본에 대항하고자 하는 자는 제일 먼저 와서 시험해보아라.

위의 伊藤 연설에서 주요 내용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라 일본이 한국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한국 황제의 부탁으로 통감 정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니 한국민은 황제의 명에 복종하여 한국과 일본이 합심하여 문명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다. 즉 한국민의 힘으로는 현재의 정세를 변화

시킬 능력과 형편이 되지 않으므로 일단은 동양의 강대국인 일본의 인도에 따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구습을 지키면서 문명국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서양 강대국에게 침략을 받게 될 것이니 일본과 합심하는 길만이 유일한 보존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伊藤의 연설은 시종일관 한국의 비문명화를 강조하면서 제국주의 논리에 의한 강자의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그의 논리는 곧 동양의 유일한 문명국가인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양도 받고 내정을 개혁하는 것만이 한국의 문명화를 위한 길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伊藤의 연설은 순행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청중의 구성에 맞추어 연설 내용과 문장의 형태가 변화하였다.

부산과 마산 등은 일본인 거주민이 많은 지역임을 감안한 것인지는 몰라도 한일 양국민의 화합에 힘을 두었으며 대구에서는 통감부의 정책과 일본 제국의 외교 정책에 한국인들이 적극 협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1월 12일 대구 이사청 앞에 소집된 사람들은 지역 유생들로서 지역 여론의 중심체들이었다. 그래서 다른 환영회 연설들보다도 長久하고 한문이 많은 문장이었다.

이와 같이 伊藤의 연설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연설 형태는 결국 한국인들을 일본 제국주의 통치에 자발적인 순응 내지는 복종<sup>75)</sup>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순종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1월 7일 대구 유생 禹夏圭 등이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에게 上書한 글에서 순종이 국가의 多難한 일속에서 兪동설한임에도 순행에 임하여 慰民하시는 것을 감복하여 받아들인다고 하였다.<sup>76)</sup>

대구를 비롯한 지방민의 입장에서는 흑한의 계절에 황제가 직접 자신들을 보러 온다는 것이 신민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감격할 일이었다. 그래서 伊藤의 활동은 자연히 순종의 윤희에 의한 것이므로 지방민의 시각에서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군주라는 상징성이 내포하는 지속성 때문이다.<sup>77)</sup> 즉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의무부담의 고정화를 지속시키는 것이다. 중세 일본의 천황처럼 정치, 경제의 실질적인 권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75) 에티옌느 드라 보에티, 『자발적 복종』(울력, 2004).

76) 『내각일기』 1월 7일, 대구.

77) Bloch, Maurice E. F./秋津元輝(譯), 「王權의 持續性」, 『王權의 位相』(弘文堂, 1991).



지역을 통괄하는 권력의 상징성은 지속되었다. 러일전쟁 이후 순종도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된다.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권력은 통감을 위시한 일본인이 장악한 상황이었지만, 대한제국민에게 순종황제의 상징성은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음을 伊藤을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은 간파하였던 것이다.

한편 순종의 순행 와중에 각지의 민심과 동향분석이 수시로 순행을 수행한 일본인과 각 지방 이사청에서 통감부로 보고되었다. 통감부에서 순행을 계획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민심의 향방에 민첩하게 반응했다는 점은 통감부가 순종의 순행을 단순한 정치적 퍼레이드로 이용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통감부에서는 민심의 동양 파악과 함께 인쇄물을 통해 순행의 합당성을 선전하였다. 통감부에 보고된 내용 중에 “지방의 한 양반은 신문을 통해 순종의 순행 소식을 듣고 단발을 감행하였으며, 500여 년간 미증유의 지방 순행에 있어서 통감에 의해 순종이 일본으로 납치된다고 생각했으나 오해를 풀고 순행을 환영하였다”라는 부분이 있다.<sup>78)</sup> 그리고 “한국 측에서 순행은 民情御視察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일본인의 손으로 만든 繪葉書, 사진, 圖畫 등을 각 지방에 반포하여 국민 일반이 따르도록 하여 한인을 조속히 일본화 하는 좋은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언론 보도와 인쇄물에 대한 것이다.<sup>79)</sup>

통감부의 계획은 예상대로 나타난다. 순행 당일 순종이 통감에 의해 일본에 납치된다고 믿고서 경부선 철로에 눕기도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일본 군함을 방문하고 돌아온 순종을 보고 즐거워하는 광경이 나타났다. 더욱이 동래에서는 結髮의 구습을 지키던 사람들이 순종의 散髮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며 종래의 구습을 지키는 것이 聖意를 거슬린다면 散髮하는 자가 많았다.<sup>80)</sup> 이외에 1월 7일 통감부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沿道の 각 촌락에는 모두 日韓國旗가 걸려 있으며 추풍령역에 정거했을 때는 만세소리와 함께 고령자들이 배알하였으며, 대구에서는 日韓人官吏와 양반들이 공사립학교생도, 애국부인회원, 적십자사원 등 3만여명이 御

78) 국사편찬위원회, 「韓皇陛下 南韓巡幸에 대한 各地方民心狀況報告」; 「行幸ノ各道民心ニ及ホシタル影響電報摘要」, 『통감부문서(9)』.

79) 국사편찬위원회, 「皇帝陛下 行幸後에 日韓民의 感想」; 「日韓兩帝室御親交의 表示와 國民의 融和의 一大動機」, 『통감부문서(9)』.

80) 국사편찬위원회, 「伊藤統監 演說後의 韓民의 反響 및 奉迎狀況」, 『통감부문서(9)』.

道の 양측에 도열하여 성황리에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있다.<sup>81)</sup>

그리고 1월 8일 警務局長 松井가 경성의 부통감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부산에서는 대구보다 훨씬 많은 군중이 순종의 순행을 맞이하였으며, 통감부에 보고된 내용에는 “부산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궁정열차가 도착하는 연도에 日韓國旗가 걸리고 매번 연도에서 만세 소리가 울렸으며 密陽, 三浪津, 龜浦驛 등에는 많은 奉迎者들이 나왔다. 또한 부산역에서는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 군함의 장교들과 官衙員, 지방 유지 등 수 만명이 나와 미증유의 장관을 연출하였다”라고 하였다.<sup>82)</sup> 이외에 “韓皇은 동래부에 經宿할 예정이었으므로 오후 3시에 통감과 같이 東萊府廳으로 행행했는데, 많은 한인들이 기쁨을 드러내고 80세 이상의 노인 5명과 節婦 2명이 배알을 청하여 임시 휴게소를 설치하기까지 했다”고 하였다.<sup>83)</sup>

통감부에 보고된 내용들은 순행 중의 사실들이다. 통감부에서 순종을 맞이하는 지방민들의 반응이나 참석자들의 인원수 등을 굳이 과장되게 보고할 이유가 없으며, 특히 동향 파악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오히려 순행 외중에 발생한 반일 감정이나 사건을 보고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통감부에 보고된 내용을 종합하면, 순종의 순행을 영접하는 지방민들은 한일 양국의 국기가 게양된 장소에서 진심으로 자신들의 군주를 영접하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환영 인파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통감부의 의도대로 순행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보고 내용에 가감이 있을 이유가 없는 사실임을 짐작하게 한다.

#### IV. 맺음말

대한제국은 조선왕조의 연장선상에서 유교적 통치술을 근간으로 정비된 제국이다. 황제의 권력은 다양한 국가 의례에 의해 표출되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황제의 순행이었다. 그런데 러일전쟁의 여파에 따른 국제정세의 변화로 대한제국이 급속도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지배하에 놓이면서 황제의 순행은 식민화를 위

81) 국사편찬위원회, 「韓皇南巡에 따른 現地 奉迎狀況 報告」, 『통감부문서(9)』.

82) 국사편찬위원회, 「皇帝陛下 釜山到着 大奉迎件」, 『통감부문서(9)』.

83) 국사편찬위원회, 「皇帝陛下 東萊府廳 行幸 件」, 『통감부문서(9)』.

한 통치술의 하나로 이용되게 된다.

그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다양한 통치 스펙트럼의 하나가 1909년 1월에 거행된 순종의 순행이었다. 조선왕조를 통틀어 제왕이 직접 한반도 변경에 행차한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하물며 순종이 순행을 거행한 1월은 겨울로서 일반인이 여행하기에도 벅찬 계절이었다. 따라서 황실의 전례도 없으며 계절적 상황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순행이 거행된 것은 伊藤博文과 통감부의 의도가 적극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순행이 거행된 1909년은 을사조약, 정미조약, 고종양위 등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항일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던 시기였다. 특히 순행지에 포함된 부산과 마산과 같이 일본인에 의해 새롭게 조성된 도시는 기존에 거주하던 한국인과 지역적 마찰이 더욱 심하던 곳이다. 이에 일제는 격화되던 항일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도 한국인을 자연스럽게 식민 통치에 순응하고 일본을 경외하는 대상으로 보게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순행을 거행하였다.

이는 순종의 순행에 伊藤博文을 위시하여 통감부 직원, 일본군이 대거 수행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일제는 한반도의 현실 정치상황을 지방민에게 직접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순종의 권위를 빌려서 그 후광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정당화하려는 이중적 의도가 내포되었던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이미 을사조약과 정미조약, 고종의 양위 등으로 대한제국 지배층에 친일세력을 완벽하게 구축한 상황에서 친일적 사회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사회구조의 개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순종의 남순행은 1909년 1월 7일 대구, 부산, 마산, 대전을 거치는 6박 7일의 여정으로 거행되었다. 순행의 조직은 황제의 명으로 내려졌는데, 실제 순행의 준비를 위한 인원과 물자의 동원은 전적으로 통감부에서 담당하고 지시하였다. 순행 기간 내에 이용된 궁정열차, 마차, 인력거, 숙소의 배정에 있어서도 일본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으며, 행사의 각종 의식 형태도 일본식이 많이 사용되었다. 아울러 순행지마다 개최된 환영회에서 伊藤博文이 한일우호와 일본 제국주의의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연설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순종이 방문하는 순행지마다 수많은 한국인이 환영하였다. 황제가 기차를 타고 지방을 방문하는 것부터 전대미문의 일이었으며 일제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정비하고 환영 분위기를 고무한 것도 크게 작용하였다. 특히 일본 천황과 내각

에서 파견한 일본 제1·2함대의 부산, 마산항 입항과 순종의 방문은 한일 양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러시아 함대를 격파한 동양의 강대한 함대를 본다는 것부터 한국인들에게 강한 일본의 이미지를 심는데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는 순종의 일본 함대 방문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순종은 각 지방의 많은 민인들을 만나는데, 그 중 주목되는 부분은 대전에서 전직 관료들을 대면하는 장면이다. 이때 순종은 대전역에 나온 전직 관료가 전통관복을 착용한 것을 보고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이라고 혹평하며 문명화할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순종의 척어는 순행도중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런 모습은 바로 일제가 의도한 것이기도 하다. 각 지방민에게 근대 문명의 대표주자인 기차를 타고 나타난 황제가 단발에 서양식 제복을 입은 모습은 대한제국 전래의 풍습을 야만시하고 오히려 서구문화를 소개하고 강요하던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미화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결국 순종의 순행이 일제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일환으로 거행되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그 계획안에는 한국사회를 자발적으로 일본의 통치체제에 흡수되고 동화하도록 사회구조의 개편을 유도하는 교묘한 제국주의의 손이 작용하였음을 엿보게 한다.

## 참고문헌

『순종실록』; 『승정원일기』.

『내각일기』 K2-0182, 장서각.

『남순행일기』 K2-0188, 장서각.

『통감부문서』 9. 국사편찬위원회, 199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대한제국』 42. 1999.

李章熙, 「남순행일기」. 『국학자료』 9, 1973, 문화재관리국.

李政源, 「대한제국의 성립과정과 열강과의 관계」. 『한국사연구』 64, 1989.

서영희,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3.

김세은, 「고종초기(1863~1876) 국왕권의 회복과 왕실행사」. 서울대 박사논문, 2003.

마루야마 마사오/김석근(역),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서울: 한길사, 1997.

原武史, 「근대 일본의 교코케이(行幸啓)에 관한 고찰」. 『국가이념과 대외인식 17~19세기』. 서울: 아연, 2002.

에티엔느 드라 보에티, 『자발적 복종』. 서울: 울력, 2004.

이왕무, 「조선시대 국왕의 溫幸 연구」. 『국사관논총』 108, 2006.

임민혁, 「高·純宗의 號稱에 관한 異論과 왕권의 정통성」. 『사학연구』 78, 2005.

Fujitani, T., *Splendid Monarchy: Power and Pageantry in Modern Japa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diego, 1996.

佐佐木克, 「明治天皇のイメージ形成と民衆」. 『幕末・明治期の國民國家形成と文化變容』. 新曜社, 2002.

原田豊次郎, 『伊藤公と韓國』. 日韓書房, 1909.

『明治天皇大阪行幸誌』. 大阪市役所, 1921.

「西南巡幸」. 『新民』 14, 1925.

李覺鍾, 『純宗實記』. 신민사, 1927년.

Bloch, Maurice E. F./秋津元輝(譯), 『王權の位相』. 弘文堂, 1991.

小路田泰直, 『國民<喪失>の近代』. 吉川弘文館, 1998.

### 국문 요약

본고는 대한제국 2대 황제인 순종의 순행을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한반도를 통치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순종은 1909년 1월 삼남을 시찰하는 남순행을 거행하였다. 그런데 당시의 순행은 통감 伊藤博文과 통감부, 그리고 일본 정부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진행된 것이 기존의 순행[幸行]과 구별되는 점이다.

일본이 순종의 순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배경은 明治 천황의 순행에 힘입은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일본은 명치 천황이 즉위하면서 거행한 지방 순행을 통해 일본 각지에 천황상을 심는데 성공한 경험이 있었다. 이런 배경으로 일본은 러일전쟁 이후 순종의 순행을 대한제국 식민화를 위한 통치술의 하나로 이용되게 된다. 특히 순행지역과 시기를 볼 때 황실의 전례도 없으며 계절적으로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행이 거행된 것은 伊藤博文과 통감부의 의도가 적극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순행이 거행된 1909년은 을사조약, 정미조약, 고종양위 등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항일 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던 시기였다. 특히 순행지에 포함된 부산과 마산과 같이 일본인에 의해 새롭게 조성된 도시는 기존에 거주하던 한국인과 지역적 마찰이 더욱 심하던 곳이다. 이에 일제는 격화되던 항일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도 한국인을 자연스럽게 식민 통치에 순응하고 일본을 경외하는 대상으로 보게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순행을 거행하였다.

이는 순종의 순행에 伊藤博文을 위시하여 통감부 직원, 일본군이 대거 수행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일제는 한반도의 현실 정치상황을 지방민에게 직접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순종의 권위를 빌려서 그 후광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정당화하려는 이중적 의도가 내포되었던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이미 을사조약과 정미조약, 고종의 양위 등으로 대한제국 지배층에 친일세력을 완벽하게 구축한 상황에서 친일적 사회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사회구조의 개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투고일 : 2007. 4. 11.

● 심사완료일 : 2007. 5. 29.

● 주제어(keyword) : 대한제국(Empire of Daehan), 황제(emperor), 순행(Soonhang), 의례(ritual), 의장 행렬(Pageantry), 순종(Sunjong), 식민지(colony), 패트론(patron).